

# 아날로그식 '편지 행정'과 광주의 미래



##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우체국 창밖엔 가을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고 있어. 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니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 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난 이 편지에 우체국 창문에 비친 햇살과 창밖에 스치던 따뜻한 바람을 동봉할 작정이야. 주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지금의 햇살과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야.”

아련한 첫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클레시'에 나오는 연애편지 중 일부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다' 했던 유지원의 시를 서두에 인용하더니, 자기도 우체국 창문 앞에서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편지를 쓰고 있다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어 천천히 써 내려가고 있노라 고백한다.

연애편지! 이 얼마나 설레는 단어인가.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이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대상이 있다는 건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지만 삼백여년 전 허난 그리워하면서 정작 그 그리움의 상대에게 내 마음을 담아 보내는 편지를 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한창때 친구들의 연애편지를 대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네 역시 학창 시절 글 좀 쓴다는 친구들은 연애편지를 대신 써 주고, 전뻥한 점심을 얻어먹기도 했다. 그런 그였다. 연애편지에 넣을 네일 클로버를 찾아 캠퍼스 잔디밭을 누비고, 어쩌다 발견하면 두꺼운 책에 끼워 넣은 뒤 잘 마라길 기다리곤 했다.

### 정성이 통했다 열정이 통했다

가을이면 은행잎이나 단풍잎 따위 색깔 고운 낙엽을 찾아 나섰으니, 예쁜 낙엽이나 네일 클로버는 연인에게 보내는 이력의 정성이요 사랑의 표시였다. '까딱 까딱'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카톡'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요즘 아이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다.

굳이 연애편지가 아니더라도 훈훈한 편지를 받을 때면, 마치 깊은 산골에 쌓인 눈이 따사로운 봄 햇살에 녹아내리듯, 오래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좀처럼 '손편지'를 구경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어디 그뿐이라만.

과거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정치인들조차 종종 편지를 활용하기도 했다. 김종필 전 총리는 1988년 총선 직후 냉랭해진 양김(兩金)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때 뚝으로 편지를 썼다. “于先(우선) 高見(고견)을 들려주셨으면 해서 一筆(일필) 獻上(헌상)합니다. 下回(하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육필로 정성 어린 답신을 보냈다고 한다.

빨간 우체통마저 보기 힘들어진 요즘이지만, 아직도 편지포재미(?)를 보고 있는 이가 있으니 바로 운정현 광주 시장이다. “회장님을 아직 범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회장님께서 일귀 오신 기업 신화와 소신 있는 경영 철학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 얼마 전 영고 광주 공장을 직접 방문해 영고가 이루어가는 신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이 광주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큰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세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2위 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 김주진 회장에게 보낸 윤 시장의 편지 일부다. 김 회장은 국내 최초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든 한국 최초로 컬러 TV를 생산한 아남산업 김항수 회장의 장남이다. 윤 시장이 편지를 보낸 것은 엠코테크가 서울 사업장을 인천 송도로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

로 분산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광주는 마음 한켠에 늘 빛이 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윤 시장의 친서를 받은 김 회장도 곧바로 답신을 보내왔다. 결국 엠코코리아는 내부 논의 끝에 서울 사업장의 인력과 설비를 인천과 광주로 나눠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 사업장 근무 인원은 총 40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꽤 거였다. 조금 과장하자면 윤 시장은 편지 한 통으로 새로운 5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

정 어린 읍소가 통했기 때문이다.

김치냉장고 '담체'와 '위니아에어컨'을 생산하는 ㈜대우위니아가 본사와 공장을 광주 남산단으로 옮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노조가 본사 이전을 반대하는 난관도 있었지만 윤 시장은 이 문제 역시 정성으로 돌파했다. 광주를 찾은 노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광주형 일자리'를 소개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감 없이 전한 것이다.

윤 시장이 처음 제안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여기저기 너무 많이 소개가 된 터라 이 자리에서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 윤 시장은 1997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낸 당시, 아시아자동차 부도로 2000여 명의 지역 근로자가 해고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노사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국정규제에 포함되고 연구용역비가 추경안에 반영된 것도 꽤 고무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 정책의 방향과 '광주형 일자리'가 정확히 일치한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바야흐로 광주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광주의 꿈이 영글고 있다. 임기 초반에 사람 하나 잘못 쓰는 바람에 이런 저런 말도 많았지만, 이제 윤 시장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열정과 광주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만은 믿고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 국내의 기업들이 몰려오다

전기자동차 투자 유치를 위해 윤 시장은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비록 아난드 회장님을 아직 범지는 못했지만, 국내에 출간된 마힌드라 그룹을 소개한 책을 통해 회장님의 경영 철학과 비전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몇 번의 편지가 오간 후 인도 현지 방문까지 이뤄진 끝에 아난드 회장은 “(전기차 분야) 협력과 시너지의 길에 동행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른다.

중국의 신형 자동차 기업인 조이퉁(九龍)차의 광주 투자 결정도 “자동차도시 광주에 투자해 달라”는 윤 시장의 편지가 시발점이 됐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례적인 문구가 담긴 짧은 공문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광주행(行)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윤 시장의 진

# 美, 잇단 대북 강경 발언... 대화론 일축

## “직접 협상 없다” “김정은, 편하게 잠 자서는 안될 것”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강경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을 둘러싸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경도 불사하겠다는 대북 강경 대응론과 대화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면서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론을 일축한 것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올바른 전략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대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역대 동맹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결국은 좀 더 생산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안보 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 대해 “그는 밤에 편하게 잠 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MSNBC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김정은에 맞서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고립돼 있고, 이 문제(북핵 프로그램)에서도 고립돼 있다”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가 미국 본토 전역에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그는 “북한 ICBM이 샌프란시스코 또는 피츠버그 또는 워싱턴에 도달할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것은 심각한 위협(grave threat)”이라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자유한국당·오른쪽)이 3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장에서 마이크 로저스 전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회의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미국무부가 이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틸러슨 장관은 마닐라에서 북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 여성 초혼 연령 30.1세...전남 29.5세

## 광주 고용률 48.1%...전국보다 2.1% 낮아

### 통계청 '광주·전남 여성의 삶'

광주는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고 전남은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초혼 나이는 광주가 30.1세, 전남 29.5세였다.

3일 충남지방통계청이 작성한 '통계로 보는 광주·전남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여성인구는 75만3000명으로 남성인구보다 5000명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여성 초혼 평균 나이는 30.1세였고 재혼 평균 나이는 44.0세였다. 초혼 부부 중 여성 연상 비율은 16.2%였다.

광주 여성의 고용률은 48.1%로 전국 여성 고용률 50.2%보다 2.1%포인트 낮았다. 여성의 실업률은 3.0%로 전국여성 실업률 3.6%보다 0.6%포인트 낮았다.

전남 여성인구는 89만5000명으로 남성인구보다 6000명 적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여성 초혼 평균 나이는 29.5세였고, 재혼 평균 나이는 44.0세였다. 초혼 부부 중 여성 연상 비율은 15.5%였다.

전남 여성 고용률은 53.4%로 전국여

성 고용률 50.2%보다 3.2%포인트 높았지만 여성 실업률은 1.9%로 전국여성 실업률 3.6%보다 1.7%포인트 낮았다.

한편, 13세 이상 여성인구가 느끼는 가정생활 스트레스는 광주가 47.7%로 남성보다 11.6%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51.2%로 남성보다 12.8%포인트가 높았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광주는 남편이 부인에게 71.8% 만족하는 반면 남편에게 만족하는 부인은 10%포인트가 낮은 61.8%에 그쳤다. 전남지역 여성의 남편에 대한 만족도는 남편의 그것보다 9.1%포인트 낮은 54.7%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성들의 가정생활 불만도와 낮은 만족도는 결혼생활이 오래된 부부들의 이혼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혼생활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율은 광주가 2005년 17.9%에서 2010년 22.4%, 2015년 28.7%, 2016년 28.9%로 매년 증가했다. 전남은 2005년 16.5%에서 2010년 21.3%, 2015년 27.5%, 2016년 28.3%로 늘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원도 악산면 득암리 해수욕장점 2481㎡ 별장적합 2억4천
- 담양 무정면 오례리 1495㎡ 창평에서 15분 4800만원
- 곡성 옥곡을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원도 악산면 해안가 대지 617㎡ 팬션용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원도 고금면 땅 2672㎡ 주택 137㎡ 전원생활적합 1억8천
- 아파트 남구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1억1500 임대가능
- 아파트 북구 오지동 학신 78㎡ 9층 올리모빌링했음 1억3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담양 무정면 땅 4297㎡ 집 147㎡ 사찰·화실·별장적합 6억천
- 광산구 송산동 7725㎡ 빌라·다세대적합 12억3천
- 고흥 동일면 비다점 대지 등 19700㎡ 팬션있고 요양 시설·병원·연수원·사찰·기드원 등 적합 12억5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장적합 담양 봉산면 제월리 3501㎡ 1억1500만원
- 담양 금성면 42900㎡ 전원주택단지 적합 도로종류 34억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상가건물

- 유동 좋은 모델 대지 422㎡ 건물 984㎡ 김정 12억천
- 교환가능 7억8천
- 남구 월산동 신축중인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 상가, 2층 원룸과 투룸, 3층 안집 살면서 임대생활적합 5억6천
- 주월동 무동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억5천
- 충장로4가 요지 대지 261㎡ 건평 1128㎡ 전세3억 월 천만원수익 25억
- 유동 2층상업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임대종류 9억6천

금매

- 영암 신희읍 용암리 전 4628㎡ 공사가 2억 3천 매도 2억 6백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5기)	광주교육대학교(16기)
개강일시	· 화요일 오전반 : 2017. 9. 5.(화) 09:10 (총 6주) · 토요일 오전반 : 2017. 9. 9.(토) 09:10 (총 6주)	· 목요일 오전반 : 2017. 9. 7.(목) 09:10 (총 6주) · 금요일 오전반 : 2017. 9. 8.(금) 09:10 (총 6주) · 토요일 오후반 : 2017. 9. 9.(토) 14:10 (총 6주)
모집기간	2017. 8. 1(화)~9. 9.(토)	2017. 8. 1(화)~9. 9.(토)
수업기간	2017. 9. 5.(화)~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9. 7.(목)~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서 ·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현문혁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국립학교법과 후 교육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대급~서법)취득 기회 부여	·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서 ·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현문혁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국립학교법과 후 교육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대급~서법)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봉교): 010-3614-4160 <b>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b>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620-4243 · 지도교수(선봉교): 010-3614-4160 <b>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b> http://www.gneue.ac.kr/

###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활용 사업제한 공모 공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부지를 매입하여 동백야를 대표하는 해양관광리조트를 조성할 사업 제한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 근거
  - 가. 사업의 목적: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부지를 활용하여 동백야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리조트를 조성함으로써 박람회장을 넘어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 나. 사업추진근거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2017-66, '17.4.18)
2. 사업개요
  - 가. 사업 명: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활용 사업
  - 나. 사업위치: 정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일원
  - 다. 사업대상 및 규모: 부지 면적 10,767.7㎡
  - 라. 사업내용: 박람회장 부지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운영
  - 마. 사업기간: 2021년 착공을 목표로 단계적 조성·개발
3. 사업제한조건 및 제2안시 유의사항
  - 가. 사업제한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함.
  - 나. 사업제한자는 본 사업의 사업부처내에 있는 한국인, 엑스포를 존치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하여야 함.
4.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
  - 가.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나. 사업계획서 제출
    - (1) 제출기한: 10월 31일(화) 12:00까지
    - (2) 제출장소: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경영기획부(국제관 B동 2층)
    -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함.
  - 다.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방법
    - (1) 자의심사: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등을 평가
    - (2)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3) 사업계획서 평가: 11월 2일(목) ~ 11월 3일(금) 예정
    - (4) 사업자 후보자 선정공보: 11월 3일(금) 예정
5. 기타사항
  -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나. 기타 문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경영기획부(061-659-2021 ~ 2)로 문의하시기 바람.

※ 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타나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공고될 수 있으나, 필의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변경공고의 내용을 준수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변경된 공고 내용을 미수치로 인한 책임은 사업제한자에게 있음.